

노병천의 손자병법 인문학

글.
노병천 미국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박사
전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전 미국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총장
현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30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생각하라

알베르1세와 장개석의 수공

필잡어리해(必難於利害)

- 『손자(孫子) 구변 제8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차디찬 전선의 적막을 뚫고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 독일군 중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 것이다. 이에 화답해 상대 진영에 있던 영국군도 캐럴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독일군 장교가 진지에서 나와 영국군 하사와 악수를 했다. 이를 두고 크리스마스 정전(Christmas truce)이라 부른다. 이 정전은 정확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1914년 12월 24일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르에서 행했던 무언(無言)의 정전이다. 처음에는 참호선 중간지대에 첩첩이 쌓인 자기편 군인들의 시신을 회수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상대방 진지까지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거나 심지어 편을 갈라 축구 시합을 벌였다고 한다(독일팀이 3대 2로 영국팀을 이겼다).

이 일이 있기 불과 두 달 전인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곳 이프르에서 첫 번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프르는 의류 교역으로 유명한 플랑드르(Flandre) 중부에 있는 중심도시다. 프랑스어인 플랑드르는 ‘물에 잠긴 땅’을 뜻하고,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플란더스(Flanders)가 된다. 영국 작가 워더 부인이 쓴 ‘플란더스의 개’의 작품 배경이 바로 플랑드르이기 때문에 ‘플란더스의 개’가 되었다. 이프르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측 해협에 있는 항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독일군에도 이프르는 중요한 장소였지만 연합군으로선 이 지역을 빼앗기면 상대적으로 기동하기 쉬운 플랑드르



1915년 1월 9일 London News에 실린 일러스트
‘크리스마스 정전’
관련 일러스트
/ 출처 : wikipedia



1914년의 크리스마스 정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의 축구 시합 사진 / 출처 : www.indymedia.org.nz/events/3367

평야로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10월 21일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연합군은 플랑드르 전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플랑드르의 여러 해안 마을은 독일군의 공격에 의해 쓸대밭이 되었고 벨기에 국왕인 알베르 1세도 플랑드르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피신했다.

이제 길이 열려 독일군은 영국군과 벨기에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디스마이데와 해안 요충지인 뉴포르트를 위협했다. 파죽지세로 달리는 독일군의 진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연합군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했다. 알베르 왕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진출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바닷물을 막고 있는 수문을 열어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년간 플랑드르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알베르 왕은 주저 없이 수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때가 10월 27일이다. 그동안 저지대의 플랑드르 주민들은 피땀을 흘리며 바닷물을 막아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다시 바닷물을 넣어 마을이 잠기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바다에 잠겼던 이 마을은 6년이 지나서야 겨우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다. 마침 10월 29일은 보름이어서 조류가 가장 높았고 바닷물에 의한 홍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났다. 뉴포르트에 있는 중앙시스템의 주요 수문에 대형 다이내마이트가 장착돼 곧 커다란 굉음과 함께 수문들이 폭파되었다. 마을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연합군은 강의 제방이나 높은 곳으로 피신을 했다. 일주일 안에 북해의 홍수는 뉴포르트부터 디스마이데까지 무려 16km에 걸친 지역을 덮었다. 결국 독일군은 그 후 거대한 홍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마침내 지루한 참호전으

로 돌입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정전은 바로 이 플랑드르 홍수 두 달 후에 일어났던 참호전에서의 해프닝이었다.

홍수로 적의 진격을 늦추려고 시도한 비슷한 사례가 동양에서도 있다. 1938년 중일전쟁 당시 수세에 몰린 장제스(蔣介石)는 화북에서 무한(武漢) 방향으로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황하(黃河)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행했다. ‘물로써 군대를 대신한다(以水代兵)’는 병법에 따른 것이다.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중국어로 결제(決堤)라고 한다. 장제스가 행한 결제는 6월 9일에 정주 북쪽 화원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원구 결제’라고 부른다. 당시만 해도 일본군의 진격은 일단 저지돼 장개석의 작전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잠시 진격 속도를 지연시켰을 뿐 얼마 후 무한은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무너진 제방 때문에 큰 재앙이 발생했다. 수일 후 상류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고, 제방



알베르 1세
1875년 4월 8일
~ 1934년 2월 17일



장제스
1887년 10월 31일
~ 1975년 4월 5일
/ 출처 : wikipedia

붕괴 지점에서 또 다른 대규모 붕괴가 발생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대홍수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 면적의 절반을 넘는 지역이 침수됐고, 1250만 명의 이재민과 8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장장 9년 동안 하남성과 안휘·강소성 일대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다. 황하의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1000년간 크고 작은 붕괴가 1500여 차례 있었고, 대규모로 물길에 바뀐 것도 26차례였다. 하지만 화원구 결제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긴 엄청난 피해는 없었다.

손자병법 화공(火攻) 제12편에는 불로 공격하는 화공(火攻)과 물로 공격하는 수공(水攻)에 대해 나온다. 손자병법 전체를 통해 수공에 관한 내용은 이것이 유일하다. ‘불로 공격을 도우려면 현명해야 하고, 물로 공격을 도우려면 강해야 한다. 물로 적을 고립시킬 수는 있어도 가히 빼앗을 수는 없다’(以火佐攻者明 以水佐攻者強 水可以絕 不可以奪). 조금 더 알기 쉽게 풀면 이렇다. 화공은 불을 놓기에 적절한 시간대와 풍향 그리고 유리한 장소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공은 수공 후에 혼란에 빠져 있는 적을 향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공으로는 적을 잠시 고립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제스의 화원구 결제 사례를 볼 때 손자의 이런 지적은 정확하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지연시킨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손자병법 구변(九變) 제8편에 보면 이와 관련된 어구가 나온다. ‘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의 양면을 동시에 생각한다’(智者之慮 必雜於利害).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에 어느 한 면에만 치우쳐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 어떤 것에도 100%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100%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속단(速斷)은 언제나 금물이다. 한쪽에만 치우친 단정적인 판단은 위험하다. 알베르 1세와 장제스는 물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시도했다. 그 발상은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알베르 1세는 성공했고 장제스는 실패했다. 결론론 적이지만 장개석은 당시 상황에서 수공을 해선 안 되었다. 황하를 잘못 건드렸다. 수공의 해(害)보다는 수공의 이(利)에 치우쳐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다.

必 반드시
雜 섞일
於 어
利 날카로울
害 해칠

必 雜 於 利 害
필 잡 어 리 해

반드시 이익과 손해를
같이 생각한다



2008년 크리스마스 정전 기념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영국·독일 참전용사의 후손들 / 출처: wikipedia

대체로 사람들은 상황이 급급해지면 손해 측면보다도 이익 측면에 치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 심리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1965년부터 8년간 베트남 전쟁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스톡데일 장군은 수용소에서 죽은 많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지나간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지나간다. 그러면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심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대책 없이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는 이들의 결말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해(利害) 양면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위기를 만나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잃지 말되,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생을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럴 때면 이른바 ‘국방 전문가’라고 하는 인사들이 언론 매체에 등장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피력한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다. 군사전략적으로 ‘위협’을 평가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의도, 능력, 환경·조건이다. 첫째는 상대국이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뒷받침되느냐는 것이다. 셋째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국내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성숙해 있느냐는 것이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 ‘능력’이다. 의도와 환경·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덜 중요한 요소다. 능력은 위협의 주체다. 능력만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언제든지 전쟁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보라.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일본 군부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켰다. 왜 전쟁이 가능했는가? 의도와 환경보다 전쟁을 수행할 ‘능력’에 자

2015년, 해군사관학교에 세워진 활을 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 출처: 연합뉴스

31

미리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 『손자(孫子) 구변 제8편』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 있다. 노처녀에게 “시집 언제 가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있다. 바로 “전쟁이 나겠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온다. 몇 해 전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그러했다. 그리고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북한을 바라 볼 때 의도나 조건보다는 그들의 실제적 '전쟁능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그 어떤 예측이나 전략도 헛다리를 짚는 게 되고 만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 조선은 정신을 놓고 있었다. 바로 이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다. 이순신은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일본의 침략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다. 전국시대를 마감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순신의 탁월한 선견지명이다. 전라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적의 의도가 어떻든지 확실한 '능력'을 키우려 한 것이다. 예하 5관(官) 5포(浦)에 대한 초도순시를 시작으로 전투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고 무기체계를 정비했다. 이순신의 관심은 온통 전쟁준비였다. 그 외의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임진년 정월 16일 자 난중 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때 얼마나 전투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웠는지를 알 수 있다. "……방답(防踏)의 병선(兵船) 군관과 색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우후(虞候·절도사에게 속한 무관)와 가수(假守·임시직 관리)도 역시 단속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자기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이 짐작할 만하다. 성 밑에 사는 토병(土兵) 박몽세는 석수랍 시고 선생원(先生院)에서 쇠사슬 박을 돌 뜨는 곳에 갔다가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투 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자는 용서 없이 처벌했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폐를 끼친 자도 반드시 처벌했다는 것이다.

부대 전체의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했지만 그 자신도 활쏘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난중일기 전체에서 이순신이 활쏘기를 한 기록은 대략 270여 회나 나온다. 병중(病中)이거나 제사 또는 나라의 특별한 일 외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활을 쏘다는 얘기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의 일기를 보면 집중적으로 활을 쏘는 기록이 나온다. 심지어 술자리를 하면서도 활쏘기를 멈추지 않았다. 3월 16일 자 일기를 보면 이렇다. "순천부사가 환선정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겸하여 활도 쏘았다." 과연 프로답다.



無 없을 무
恃 믿을 시
其 그 기
不 아닐 불
攻 칠 공
恃 믿을 시
吾 나 오
有 있을 유
所 바 소
不 아닐 불
可 가할 가
攻 칠 공
也 어조사 아

참고로 이순신의 활 솜씨를 잠시 엿보자. 3월 28일 자 일기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0순(巡)을 쏘았는데, 다섯 순은 연달아 맞고, 2순은 네 번 맞고, 3순은 세 번 맞았다(十巡卽五巡連中 二巡四中 三巡三中)."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풀어보자. 1순은 5발(矢)이다. 처음 다섯 순은 모두 맞혔으니 25발 명중이다. 이를 몰기(沒技)라 부른다. 2순은 각각 4발을 맞혔으니 총 8발 명중이다. 3순은 각각 3발을 맞혔으니 총 9발 명중이다. 이를 합하면 25+8+9=42가 된다. 즉 50발 중 42발이 명중된 것이니 84%의 명중률이다. 이 정도의 실력이면 현재 대한군도협회에서 정한 8단의 기준인 82%를 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순신의 전쟁 준비 가운데 압권은 거북선의 건조다. 물론 거북선은 이순신의 창작품은 아니다. 이미 170년 전의 태종실록에 거북선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순신은 태종 당시의

‘위협용 거북선’을 개량해 총포를 최대한 장착한 ‘전투용 거북선’으로 새롭게 건조했다. 4월 12일 자 일기를 보자. “식사 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地字砲), 현자포(玄字砲)를 쏘았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8700명의 일본군을 동원해 조선 땅을 침략했다.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한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굴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일본사람으로 살 것이다.

손자병법 구변(九變) 제8편에 보면 이와 관련된 중요한 어구가 나온다. 손자병법 전체를 통해 방어 태세를 강조한 어구는 오직 이 하나뿐이다. “적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올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바람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그야말로 금언(金言)이 아닐 수 없다. 적의 의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공격해 올 것인지, 공격해 오지 않을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오직 적에게 달려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능력’ 즉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능력’이 뒷받침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은 그래서 중요하다.

걱정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준비하자

중국의 병법서인 사마법에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구절이 있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해진다’는 뜻이다. 사람들아, 쓸데없이 전쟁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탁상공론하지 말라. 그 대신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확실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나라가 어수선했을수록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라. 기업인은 품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목숨을 걸어라. 정치인은 주변국을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전략 마인드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에 목숨을 걸어라. 군인은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할 위협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는 데 목숨을 걸어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자.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면 전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폴레옹은 “5분 후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의 뜻은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그렇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확실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無 恃 其 不 攻

무 시 기 불 공

恃 吾 有 所 不 可 攻 也

시 오 유 소 불 가 공 야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게 있어서 적이 공격해오지
못할 정도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